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5>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자조다

<自照>

학승이 물었다.
“공겁(空劫) 중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그 속에 앉아있어.”
학승이 말했다.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묻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問 空劫中阿誰爲主
師云 老僧在裡許坐
學云 說什麼法
師云 說你問底

공겁은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의 네 겁 중에 마지막 공겁을 말한다. 우주는 만들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비워지는 네 단계를 거쳐 순환 반복한다. 우주가 무너지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텅 빈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공겁이다.

공겁이 지나면 다시 성겁이 시작되어 우주는 순환한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공겁을 시간 적인 것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선적이다. 즉, 조주 스님에게 있어서 공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조주 스님은 우주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주는 항상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주가 원래 그러하다 자신의 마음도 영혼도 텅달아 비워졌다. 그날 이후부터는 언제까지나 공겁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공겁 중에 조주 스님은 그 누구,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해 주고, 묻지 않으면 조용히 침묵한 것도 잊은 채 선전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비어있는 빛은 스스로 비춘다[虛明自照].’라고 했는데 스스로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남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학승이 말했다.
“비추지 못하는 곳은 어더함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말에 떨어진 것이야.”

問 承古有言 虛明自照 如何是自照
師云 不稱他照
學云 照不著處如何
師云 你話墮也

허명(虛明)이라는 말은 ‘빔의 빛’이다. 빔의 빛은 자비, 사랑, 용서, 화합, 지혜, 창의적 발상 등이다. 만약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갈림이 되어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없는 사람이나 이해도 ‘빔’에서 시작되고, 자기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발상도 ‘빔’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허명자조(虛明自照)이다.

허(虛)라는 말은 비었다는 말이다. 빈 허공에 있는 빛은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럼 마음도 허공처럼 비워졌다면 이 세상 어디고 비추

마음에 분별 없어야 어리석음 사라진다 선악·부처·중생 모두 마음에서 지은 것

지 못할 곳은 없다. 범지도, 이기심도, 추악함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요, 자조(自照)이다. 그러나 마음에 조금의 분별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용서되지 못하므로 자비나 사랑은 불가능하게 된다. 마음에 분별이 있으면 빛은 없다. 자조(自照)는 누가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빛난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세상 어디도 다 볼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비출 수 있다. 이것이 자조(自照)이다.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참으로 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말만 비웠다고 하고 마음 한쪽은 여전히 미움, 분노, 시기, 탐욕, 어리석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조주 스님은 ‘말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다. 허명(虛明) 자체가 빔의 빛인데 마음이 비워졌다면 어찌 비추지 못할 곳이 있던 말인가. 그러하니 말에 떨어지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적합[的]할 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

問 如何是 的
師云 一念未起時

적(的)은 적합하다, 적당하다, 지당하다, 맞다 등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적합으로 번역해보았

다. 인생사에서 가장 적합하고 참된 시점이 언제일까? 조주 스님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간단하지만 심오하다.

모든 의미, 개념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선악에 대한 정의나 부처와 중생의 차이도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개념들이 다 진실일까? 그렇지 않다. 이 개념들은 모두 사람들의 약속일뿐이다. 절대적 선(善)은 없다. 우리는 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는 불합리해도 그 선을 따르는 것이다.

악(惡), 절대적 악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악이 오히려 선(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악은 없다. 선악으로 인간을 미워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죄를 진 자도 부처이고, 선을 행한 자도 부처이다. 마음에서 선악의 개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진실과 부합할 때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법왕(法王)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주(州)의 대왕(大王)이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은 대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모반하는 의심을 지어서 한 왕을 부인하는 거야.”

問 如何是法王
師云 州裡大王是也
云 和尚不是
師云 你擬造反去都來 一箇王不認

석가모니불은 진리의 왕이라 하여 당시 왕들이 법왕(法王)이라고 불렀다. 그 뒤로도 훌륭한 선지식을 법왕이라고 불렀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 사람의 왕은 대왕(大王)이지만, 사원의 방장 정도라면 당연히 법왕(法王)으로 불리 올만하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인(人)의 왕인 대왕(大王)이 곧 법왕(法王)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철저한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부처이다. 그가 대왕이라면 그가 곧 법왕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둘이라고 하면 모반이 된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자신을 몹시 낮추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확실한 선적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25

한산시집(寒山詩集)

천태산 세 둔세은자의 시 채집

<遁世隱者>

<한산시집>은 언제 성립됐는지, 또 한산이라는 인물의 실제 및 생몰 연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이 다양한 설만 제기돼 있다. <한산시집>은 당나라 태종의 정관제(貞觀)에 절강성 태주의 조의태부(朝儀大夫) 사지절(使持節) 태주제군주(台州諸軍主) 자사(刺史) 상주국(上柱國) 사비어대(娑睺魚袋) 여구윤(閻丘胤)이 도교(道敎)라는 스님에게 한산의 시를 채집할 것을 명해 그것을 편찬한 것으로 8-9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당 말기 오대 시대부터는 여기에 습득(寒山)과 풍간(豐干)의 시가 첨가되어 전하다가 송대에는 현재와 같은 <한산시집(寒山詩集)>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당서문예지>에서는 이미 7권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볼 수 있는 텍스트는 송대 이후의 것으로 6종이 있다.

한산자(寒山子)는 천태 당 흥현의 서쪽 70여 리 되는 곳의 바위굴에 숨어살면서 스스로 한산(寒山)이라 칭하면서 홀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한산은 국경사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절에는 습득(拾得)이라는 스님이 공양주로 있었는데 잔반과 채소 찰기리 등을 대나무 통에 담아두었다가 한산에게 주었다고 한다. 한산은 대나무통을 짚어 지고 긴 회랑을 천천히 소요하면서 유쾌한 듯이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다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그들은 털모자를 뒤집어쓰고 해진 옷을 걸치고 나막신을 신었다. 때문에 마치 은자로서 안빈낙도하면서 번거로운 세속을 벗어나서 불도를 깨치고 중생구제를 위하여 화광동진(和光同塵)하는 화현보살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현이고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또한 국경사에는 풍간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세속을 초탈한 고덕이었다. 이들 세 사람을 예로부터 둔세은자(遁世隱者)의 성현으로 추앙해왔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구윤이 태주로 부임해 가는 길에 풍간을 만나서 “이 지역에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자 풍간이 말했다. “국경사에 가면 한산이라는 문수보살의 화신이 있고, 또 습득이라는 보현보살의 육신이 계시는데 모두 형모는 초췌하지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구윤이 부임해 풍간선사를 찾았지만 이미 자취

를 감춘 뒤였는데 방안에는 단지 호랑이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아궁이 앞에 이상하게 생긴 두 사람 곧 한산과 습득이 불을 쬐면서 담소를 하고 있었다. 여구윤은 그들을 보고 바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풍간이야말로 미더 붙이었는데 그를 몰라보고 도리어 우리한테 예배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절을 뛰쳐나가 버렸다.

두 사람은 다시는 국경사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명령을 받은 관리가 한산의 바위굴을 찾아서 법의 두 벌과 향과 약품을 공양하자 한산은 큰 소리로 “들어오지 말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는 “그대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정진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는 말을 남기자 바위굴이 저절로 닫혀버렸다. 습득의 경우도 이후의 소식과 전기가 없이 다만 몇 수의 시만 남겼다고 한다.



한산습득도 (寒山拾得圖) /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

이리하여 그들이 마을의 민가 및 관청의 벽, 석벽 및 나무 등에 새겨 두었던 시가 채집됐

한산·습득·풍간의 시 386수 문수·보현보살 화신으로 추앙

다. 한산의 시 가운데는 스스로 610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약 311수가 채집됐다. 때문에 씌어진 순서 때문에 한산의 시와 더불어 습득이 토지당의 벽에 써놓았던 70수와 풍간의 5수가 권말에 수록됐는데 이것이 곧 <한산시집>이다. 이로써 <한산시집>은 천태산에 숨어살았던 한산(寒山)·습득(寒山)·풍간(豐干)의 시라는 의미에서 <삼은집(三隱集)>이라고도 한다.

<한산시집>의 내용은 물외에 초탈한 안빈낙도의 삶과 세속적인 분별을 벗어난 선적인 기지 및 내면의 진실이 자연물에 투영해 두두물물이 모두 깨침의 그림자와 같다는 조사선공의 품모가 물론 드러나 있다. 때문에 한산시대로부터 300여 년 후 송대에 황룡의 회당조심(晦堂祖心)이 태사(太史) 황산곡(黃山谷)의 거사에게 <한산시>에 화운(和韻)을 붙일 것을 부탁드렸지만 거사는 열흘이 지나도록 일구도 짓지 못하고 “만약 내가 십 년을 더 공부한다면 도연명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한산 시에는 도저히 따라볼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대의 두자미(杜子美)라고 칭송받았던 황정견(黃庭堅)마저도 혀를 내둘렀다고 전한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펼칠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재까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해 백봉선생님의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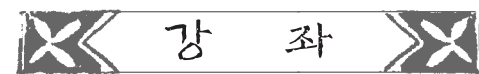
-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8시부터 2011년 1월 4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5-30)
- 회 비 : 일반 10만원 ■ 준비물 : 간편한 참석복,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모든 초록버스 이용. 하림각앞 하차.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 교보빌딩 앞 초록버스 탑승. 하림각앞 하차. (초록버스: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 *하림각 오른쪽 담을 따라 100m 올라와서 중앙하이츠에서 우회전 지장암 근처

보림선원 서울지부 청봉 합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12. 18(토) 오후 1시부터 ~ 12. 19(일) 오후 6시 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